



전국비구니회,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스님)는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무원장 자관 큰스님 초청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분열'

이사회 내홍 교수·학생 반발...46명 제적위기

'부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정신과학계의 명문대학'을 목표로 2002년 개교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가 개교 6년 만에 학내구성원 분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이사회의 황윤식 총장 해임으로 촉발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사태는 해임된 황윤식 총장의 복직과 직위해제를 반복했다. 그 사이 이사회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학교 설립자인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 지위도 박탈됐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교수는 보직해임 되고, 재학생의 1/3에 달하는 학생 46명은 학교 측의 등록 거부로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서불대 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서불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윤식(요가치로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서정혜 교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진행된 총장해임과 관련해 재학생의 3분의 1이 제적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불대 교학처장은 "이사회가 2008년 초 황 총장이 몇몇 전임교수들과 의기투합해 재단 이사회를 전복하고 본교를 매각하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황 총장을 긴급 해임하고 학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의 학내분규는 황 총장과 일부 교수의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라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직 박탈과 재학생의 1/3을 제적처분 하려했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불교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등록 마감일인 9월 25일 학교 측이 입금계좌를 차단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장 문임숙(상담심리학과 석사2년) 씨는 "이사장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과 명예이사장이 직위를 상실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수들 또한 직위를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학교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특별위는 '서불대 미등록학우 제적 반대, 교협 교수 사직 및 해임 반대 서명'을 진행해 10월 15일 현재 재학·수료생 등 14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불대 교수협의회(회장 김병권, 이하 교협)도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협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 ▲총장의 부당한 해임을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라 ▲이사회는

조동섭·김진성 기자

개운사 마애불 공사로 훼손 우려



안암동 개운사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두고 개운사와 성북구청, 고려대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개운사(주지 범해)는 "보타사 마애불(사신)이 고려대 기숙사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훼손될 수 있다"며 수차례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북구청과 고려대측은 법적(50m이내)으로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천안 구룡사,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개최

11월 8일,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도 겸해

제주에서 20년 동안 매해 광복절만 되면 수 만명의 불자들이 함께 민족의 평화통일과 구국 안민을 위한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해 온 도림 스님(사진). 서울 법화정사와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천안 구룡사 회주인 도림 스님이 이번에는 천안 구룡사에서 1만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개최한다.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대법회는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을 겸해 열린다. 법화행자들이 정성껏 필사한 법화경 사경을 탐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에 이어 8인의 불자가수들(송춘희, 남강수, 김국환, 김활선, 박정식, 신현돈, 오시원, 진미령)이 2년여 작업 끝에 완



성한 법화예찬의 노래발표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인들의 서예작품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도림 스님은 "전 세계의 불자 200만명이 써서 모은 법화경 사경본이 이미 20만여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도림 스님은 "제주불사리탑에서 시작된 사경본들은 분열된 민족이 저절로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며, 어린이들에게는 한글 바로쓰기 운동의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02)928-1331

김성우 기자

오영교 총장 리더십에 빨간불

동국대교수회 설문 결과, 10개 문항 전부 부정적

중앙일보가 이달 초 발표한 '2008 전국대학평가' 결과 동국대(총장 오영교)의 종합순위는 28위였다. 경희대(10위), 중앙대(14위), 건국대(16위), 카톨릭대(19위)와는 점수와 등수 모두 크게 뒤쳐진 사실에 오영교 총장의 리더십에 문제제기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교수 75%가 오영교 총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 오영교 총장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9월 5~2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임강사 이상 교원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45명으로 응답률 70.6%를 기록했다.

▲오영교 총장의 능력과 자질 ▲교육의 본질 ▲구성원 의견 수렴 ▲제도의 학교발전 기여 ▲108프로젝트 학교발전 기여 ▲발전기금 성과 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10개 문항 전체에서 평균 81%(최하62.3~

최고92.7%)의 강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영교 총장이 강조하던 학내구성원간 소통도 교수회와는 불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원 의견 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5%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오 총장의 학교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82.2%, 108프로젝트는 62.3%가 부정적이었다. 총장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90.2%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92.7%가 학교당국이 교수회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영교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부정적(84.2%)이지만 44.4%가 기존정책 철회 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39.8%가 즉각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조사결과 자체가 총장의 불신임을 뜻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교수회는 금명간 대의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지속적으로 오영교 총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공식적인 입

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석진 팀장(경영관리실 CS경영팀)은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는 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오영교 총장만큼 학내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는 총장은 없었다"면서, "교수의 CS광장 이용률이 3%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스템 자체는 열려있으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촛불농성단 8명 조계사서 수계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촛불수배자 8명은 천막농성 99일째인 10월 11일 조계사에서 수계법회에 참석해 불교에 귀의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불교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 조계사 촛불수행단이 주최한 '조계사 촛불수행 100일 대동한마당'의 일환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계사를 맡아 연비

의식을 진행했다.

수계법회에서 촛불수배자 8명은 진묵, 진경, 진연 등 '진(眞)'자로 시작되는 법명을 받았다. 청화 스님은 "밖에서는 수배자일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수행자들"이라며 "수계의 의미를 깊이 새겨 폭넓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안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인 마이로봇

단식과 간화선 삼매체험 수련회

용인 비봉산 활인선원 개원기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단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뛰어난 수행의 방법이다.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7박8일 동안에 집중으로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두 참구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교의 틀을 열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活人선원에서 만나는 간화선 삼매체험 7박 8일 집중 단식수행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는 참선과 금강단식의 특징과 효과

1.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예방 절연 등 금단현상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과 보식이 필요 없음.
2.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뀐.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3.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카페 참조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

가. 홈페이지 www.hwalin.or / 원명선원.kr
 나.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3세(7박 8일)
 ◆ 1차 → 11월 4일 - 11월 11일 ◆ 2차 → 홈페이지 참조 ◆ 매월 수련회 개최 예정

다. 회비할인 및 모집인원 : 선착순 55명, 10월 29일까지 등록시 25%할인 (카페 수련회 안내문 내용에 따름)
 라. 입금계좌 : 농협 237086-51-088910 (예금주-활인선원)
 바.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한평 活人선원 ☎ 031)671-7707, 671-6610

부처님 못자리가 되고자 산문을 엽니다

[교통편] 서울 조계사사에서 11월 9일 6시 / 강남 7호선전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6시 출발

- 남부터미널, 동서부터미널 죽산행 2~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번 4번째정거장 '한평' 하차
- 중부고속 일죽죽산IC에서 10분 거리. 영동고속 양지IC에서 20분. 경부고속 평택안성IC 40분

개 산 개 원 법 회

원로의원 **고우근스님** 증명 11월 9일 (일요일) 11시, 좌안 10시

대한불교 조계종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부처님못자리 활인선원

고교입학원서 종교란 신실 종자연, 교과부 정면 비판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10일 고교입학배정원서에 종교란을 신실한 것에 대해 10월 14일 논평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종자연은 "고교입학원서에 종교란을 신실해 학생의 종교와 동일종교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학교 내 종교갈등 해결 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939개 사학 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그 중 개신교사학은 165개(72.4%)에 달한다"며,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은 편법에 불과하다. 강제적인 종교교육 근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자연은 서울 상계동의 한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명사강연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연했다는 제보와 대전 모국립대 내에 교회를 설치해 특정 종교활동을 장려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